

# <창랑정기>의 내적 형식 연구

홍재범\*

## 1. 들어가는 말

유진오의 문학적 활동은 1927년 단편 <스리>가 『朝鮮之光』 5월호에 실린 이래, 1944년 <金浦 아주머니> 『放送之友』를 마지막 작품으로 끝을 맺는다. 이 두 작품 사이에 평론을 제외한 59 편의 소설과 5 편의 희곡이 놓여 있다. 이것은 그가 작품생산뿐만 아니라 비평행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적은 양이라 할 수 없다.

유진오의 작품세계는 <金講師와 T 教授> (『신동아』, 1935. 1)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있다. 그것은 1935년을 전후해 그의 작품에서 동반자적 자질이 현격하게 사라진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그가 1932년 6월 <朝鮮社會事情研究所> 사건으로 피검된 개인사적 배경과 1935년의 카프해산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의 사건에 의한 충격은 이듬해 한 편의 작품도 발표하지 못하게 했으며, 1934년에 가서야 겨우 <行路> 한 편만을 발표하게끔 만들었다. 더불어 카프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그로 인한 카프해산은 유진오에게 자신의 문학적 행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강제하게 되었다. 문단 외적으로도 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중일전쟁, 동아신질서와 같은 일본파시즘의 폭압으로 나날이 가파라져 갔다. 이

---

\* 박사 과정

러한 과정을 통해 유진오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된다.

폐색된 현실에 대한 유진오의 소설적 대응양상은 그 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나간 과거의 회상이 중심이 되는 서사들로서 뚜렷한 사건이 부각되기보다는 애수 혹은 향수가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五月二題> (『조선문단』, 1935.6), <黃粟> (『삼천리』, 1936.1), 『滄浪亭記』 (『동아일보』, 1938.4.19-24) 등이 속한다. 두번째는 장편 『화상보』를 비롯하여 시정의 편력이라는 리얼리즘적 입장에서 당시의 풍속들을 담고 있는 서사들이 있다. 전자의 작품경향에서 <창랑정기>는 <김강사와 T 교수>와 함께 유진오소설의 대표작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작품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한개 성격 형상화에 실패한 과거에 대한 감상적 회고담에 불과하다는 최재서의 혹평과 이와는 반대로 이 작품이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심오의 일면을 피력한 것으로 구체적 판단을 유보한 임화의 것으로 대별된다.<sup>1)</sup>

최재서의 평가는 유진오가 구라파적 교양과 근대적 자아의 형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온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소재의 친화성에 의한 인상주의적 오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아도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 많지 않다. 그 까닭은 기왕의 연구가 주로 동반자 시절만을 다루거나, 아니면 지식인소설의 관점에서, 또는 작가론적 입장에서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창랑정기>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2. 영혼의 뿌리체험 : 송고미

‘해만 저물면 바닷물처럼 잡조롭게 향수가 저려온다’라는 趙碧巖의 시로서 시작되는 <창랑정기>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까닭에 특별히 고향

1)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p.320.

임학수, 『문장』 (1941.3), p.161.

최재서, 『성격에의 의욕』 『인문평론』 (1940), p.135.

이랄 곳이 없는 30대 중반의 서술자가 고향을 연상시키는 유일한 장소와 얽힌 유년시절의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창랑정은 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에 선전관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서강대신 김종호가 쇠국을 고집하던 대원군의 몰락과 함께 벼슬을 내놓고 낙향하여 정착한 뒤 한 정자에 부친 이름이다. 이 창랑정 사랑마당 앞은 과거 임진왜란 시절에는 진터였으며, 병인양요 때에는 프랑스의 로즈해군제독이 함대를 몰고 와 정박했던 곳이기도 하다. 요컨대 창랑정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역사적 의미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총 7 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첫장과 마지막장을 제외한 5개장이 어린 시절 창랑정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상으로 채워져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30대 중반의 서술자가 고향과 향수에 대한 생각을 토로한다.
2. 7-8세 무렵 아버지와 함께 창랑정을 찾아가 서강대신을 만난다.
3. 소년은 창랑정의 웅대한 풍경과 한 소녀를 보게 된다.
4. 소년은 정경부인의 생신준비로 분주한 아낙네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5. 소년은 율순과 함께 뒷동산에서 논다.
6. 며칠 후 소년과 율순은 뒷동산에서 칼을 발견한다.
7. 여러 해만에 찾은 창랑정은 몰락해 황폐한 지경이고, 그후 20여년만에 찾아간 창랑정은 옛모습을 전혀 간직하지 못한 채 공장이 들어서 있다.

서술자는 창랑정을 세 번에 걸쳐 방문하게 된다. 마지막 세번째 방문으로 인해 서사는 시작된다. 즉 그는 최근 계속적으로 창랑정을 다시 한번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끝에 찾아나선다. 그가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했던 시기는 6, 7세의 아주 어린 나이였다. 두번째 방문은 그후 10년이 지난 뒤 창랑정이 황폐하게 퇴락한 뒤였고, 이제 가는 길도 기억 속에 가물 가물해진 30대 중반의 나이로 다시 찾아가게 된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는 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만 하게 되었는가에 있다. 서술자는 무슨 까닭인지 올 봄 들어 세 차례나 창랑정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미 나는 두번째의 방문을 통해서 창랑정의 기품 있는 모습들이 종손인 종근의 난봉으로 인해 모두 훼손되어 버린 황량함에 경악한 일이 있었다. 그 실망감으로 인해 그이후 지금까지 창랑정에 대

한 기억을 한번도 떠올리지 않고 잊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옛날의 창랑정에 대한 추억이 반추되며 다시 찾아가게끔 되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고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

창랑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알 리 없는 어린 나는 안방마님인 정경부인의 생신잔치를 전후해서 며칠동안 창랑정에서 머물게 된다. 그 짧은 기간동안에 소년은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6, 7세의 어린 소년과 창랑정과 첫 만남은 신비함으로 시작된다.

마루로 향한 미담이에는 갑창을 굳이 달은 위로 또 다시 짙은 자주색 방장을 드리워 있고 그 반대 편에는 구름을 타고 물결 위에 노니는 신선을 그린 큰 병풍이 삼간 벽을 꽉 채우고 있었다. 방 구석에 놓인 사방탁자와 대신의 머리맡에 놓인 한 쌍 문갑 위에는 커다란 옛날 책들이 길길이 쌓여 있다. 벼루갑 위에 놓인 용을 새긴 붓꽂이, 그 옆에 있는 범을 새긴 대리석 도장, 벽에 걸린 옛날 명필의 글씨, 흰 말짚지로 만든 긴 총채 — 아, 그 모든 신비스럽고 또 호화로운 방장식은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sup>2)</sup>

지금껏 '계동 우리집 간반 사랑밖에 모르던' 소년의 영혼은 그 호화로운 방장식과 '계름한 얼굴, 흰 살결, 은빛같은 수염'을 지닌 서강대신의 귀인 같은 풍모에 의해 깨어나기 시작한다. 창랑정의 정경은 식민지 통치에 의해 파괴된 얼마전까지의 우리들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조선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이 대목과 작품 중간의 칼이야기가 이 작품을 '과거에 대한 감상적 회고담'이란 평가를 내리게 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소년에게 조선적인 것에 대한 발견이라는 문화적 충격보다는 아직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최초로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소년의 체험이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성년의 서술자가 다시 이 곳을 찾게끔 만들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영혼에 대한 최초의 충격은 끝이어서 소년이 방안의 풍경이 제공하였던 효과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국면을 접하게 됨으로써 비로서 확고하게 각인된다. 방안의 풍경이 내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유의 과정이 지속되는 체험이라면, 강편으로 향한 덧문을 열고 내다본 밖의 풍경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기간 어린 소년이 지낸 사고의 범주를

2) 유진오, 『신한국문학전집 (9)』, (어문각, 1984), p.223.

초월해버리는 거대한 경험이 되버리는 것이다.

아 그 일순간에 소리도 없이 내 눈속으로 확 달려들던 창랑정의 대관. 그것도 역시 내 눈에 선하다. 바로 눈 아래 보이는 검푸른 물결. 물결 건너로 눈에 가득하게 들어오는 넓고 넓은 백사장, 그 백사장 저편 끝으로 멀리멀리 하늘 끝 단테까지 바닷물결치듯 울렁울렁한 아득한 산과 산 — 나는 그 장대한 풍경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곳에 섰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그 장대한 풍경에 별안간 영롱한 빛이 비치어 정신차려 보니 저녁놀이 뜨기 시작한 것이었다.<sup>3)</sup>

이 순간 소년은 아무런 개념적 사유의 시간적 고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은 하나의 갑작스런 사건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포회하고 있는 함의를 앞당겨 말하자면, 그것은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말한 ‘숭고미’의 의미영역<sup>4)</sup>과 그대로 일치한다. 칸트에 의하면 ‘숭고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대한 그 무엇’에 갑자기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주체적 느낌인데, 이 때 ‘절대적으로’란 말은 ‘모든 비교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거대하다(magnitudo)’는 말과 ‘크기를 갖는다(quantitas)’는 말은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장대한 풍경에 의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그곳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 순간 잊고 만 것이다. 저녁놀이 뜰 때까지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어린 소년이 덧문 밖의 풍경에 노출되었던 그 순간에 느꼈던 그 느낌, 그 판단

3) 유진오, 앞의 책, p.224.

4) 임마누엘 칸트(이석운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1986), pp.108-126.

우리말에 ‘크다’라는 형용사와 ‘거대하다 혹은 장대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말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적(오성적) 판단으로서 ‘작다’라는 상대적 개념, 즉 양(quantity)이나 관계(relation)의 형식이 첨가된 데서 발생하는 비교 판단이다. 다시 말해 ‘크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비교의 이성적 판단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나 ‘거대하다’라는 판단은 비교적 개념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송두리채 끊어버리는 하나의 “느낌”이다. 그것은 압도적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계기성과 단절된, 비시간적인 것이다.

칸트에게서 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미이다. 이것은 헤겔이 미적인 것을 인간의 인공물, 곧 예술작품과 동일시하였던 것과는 뚜렷히 구분되는 점이다.

페터 지마(허창운 역), 『문예 미학』, (울유문화사, 1993), pp.34-40.

은 완전히 비개념적인 것이며, 따라서 오성적 인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소년의 인식구조에 성립해왔던 자연의 모습에 대한 상식적 개념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 초월은 그 순간에 있어서는 절대적 초월이었다. 소년이 강편풍경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순간의 느낌은 순수오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 즉 그 풍경은 소년이 지니고 있던 순수오성의 범주<sup>5)</sup>에 들어맞지 않는 그 무엇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숭고함'이 발생한다고 칸트는 본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느낌은 기실, 자세히 우리의 일상경험을 뜯어 살펴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체험이나 예술적 체험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이 작품을 독해한다면, 창랑정이라는 고유명사는 그것만을 고집해야 하는 특수성의 차원이 아닌 보편성으로 고양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칸트의 논리를 살펴보자.

숭고하다고 부를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에 적합한 척도를 그것의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곧 이해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큰 것이란 그 자신에만 동일한 (그 자신 이외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크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숭고는 자연의 사물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이로부터 나온다.<sup>6)</sup>

다시 말해 숭고미에 대한 체험은 창랑정이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더라도, 7-8세의 소년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랑정기>가 서술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소설의 형식을 빌어 쓰여질 수 있는 한 계기를 발견하게 된다. 비록 아직 어린 소년은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나 창랑정의 웅대한 풍경에 의해 촉발된 뿌리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숭고는

5) 칸트의 순수오성개념을 통상 범주 혹은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를 12개로 보았고 크게는 양, 질, 관계, 양태의 4종으로 나누었다. 이 범주는 그 자체로서는 경험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오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경험적 소재와 결합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1985) 참조.

6) 칸트, 『판단력비판』, (박영사, 1986), p.115.

오직 우리의 이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명제는 역으로 숭고함을 느낌으로 인해 자신에게 이념의 세계가 존재함을 자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자신의 오성적 인식구조를 거쳐 들어오던 현실의 폭을 넘어서는 <영혼의 넓이>에 대한 발견인 것이다. 소년에게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각은 후일의 몫으로 유예된다.

30대 중반의 서술자로 하여금 다시 창랑정을 찾게 만든 원천적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술자가 두번째에 창랑정을 방문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훼손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종근의 난봉으로 "수십년 영화를 누리던 서강대신의 집안은 나날이 변하는 세상풍파에 밀려 불과 몇 해 동안에 여지없이 망해 없어지고 만 것이다."<sup>7)</sup> 창랑정의 황폐한 모습은 창랑정의 찬란했던 모습에 비해해 그 충격은 컸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 거의 이십여년 동안 창랑정에 대한 기억을 흔적도 없이 잊을 수 있었으리라. 이제 잊고 있던 창랑정이 세 번씩이나 꿈에 나타나게 된 까닭을 해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옥죄어 오는 현실의 광포함이다. 현실의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영혼은 그 현실을 넘어서고자 한다. 서술자인 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그것은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국경을 넘어 단숨에 대륙의 하늘을 무찌르려는 전금속제 최신식 여객기"<sup>8)</sup>가 날아다니는 중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이다. 폐쇄된 현실은 서술자가 품고 있는 영혼의 넓음을 용납할 수 없다. 세번째 방문은 숭고함에 의해 촉발된 영혼의 넓음을 최초로 일깨워준 그 뿌리체험<sup>9)</sup>에 대한 그리움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세번째 길은 일상적 의미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넓음을 체험한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7) 유진오, 앞의 책, p.230.

8) 유진오, 위의 책, p.231.

9) Emil L. Fackenheim은 『God's Presence in History』, p.8에서 이스라엘민족의 출애굽사건을 뿌리체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 : 1) 과거의 결정적인 사건이다. 2) 공적이며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신앙공동체 내에서 현재적인 실재로 재연된다.

### 3. 영혼과 현실의 불일치: 환멸의 낭만주의의 한 양상

영혼과 현실의 갈등관계, 특히 영혼과 현실의 광협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양상들은 환멸의 낭만주의의 특질에 닿아 있다.

19세기의 소설에서는 영혼과 현실 사이가 어쩔 수 없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관계를 갖는(추상적 이상주의와는) 또 다른 유형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된다. 영혼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성은 영혼이 삶의 운명보다 더 넓고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sup>10)</sup>

사실 이러한 의미로만 한정한다면 굳이 환멸의 낭만주의를 <창랑정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개입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소설이란 본래 서사시적 세계가 감싸안고 있는 본질과 현상의 통일상태에서 벗어난 시대가 만들어낸 양식이 아닌가?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놓여 있다. 즉, 영혼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타의 소설들과 구분짓는 변별적 자질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둘 사이의 갈등관계를 “추상적 이상주의의 심리구조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외부로 행하는 과도한 행동”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환멸의 낭만주의에서는 “오히려 수동성을 향한 경향 즉 외적인 갈등이나 싸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영혼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순전히 영혼 그 자체 속에서만 처리해 버리”<sup>11)</sup>하고자 하는 변별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임화가 <김강사와 T 교수> 이후의 세대적 경향과 성격을 달리하는 형식상의 특이함에 대하여 “단순한 에세이나 노-벨이나에 대해 일거에 단언하기 곤란한 것”<sup>12)</sup>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창랑정기>와 같은 소설을 선뜻 소설이라 부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당대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소설에 대한 개념에서

10) 투카치(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p.146. ( )는 인용자.

11) 투카치, 위의 책, p.147.

12) 임화, 앞의 책, p.191.



이러한 형식의 서사가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창랑정기>에 대한 입화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던 까닭은 작품에 내재하고 있는 '수동성을 향한 경향'이라는 환멸의 낭만주의의 형식적 특질과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소설형식이 지니는 핵심적 문제들, 즉 서사적 형상화의 상실, 아무런 구조도 없는 막연한 비구성적 분위기의 나열과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즐거리를 심리적 분석으로 대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sup>13)</sup>

이와 같은 항목들은 <창랑정기>가 서사구성의 핵으로서 작용하는 명시적인 사건은 부재한 채 시적 분위기가 전편에 흐르는 까닭을 밝혀준다. 이것은 회상의 장치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었다. 회상이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난 뒤에 주관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의식 작용이다. 처음부터 결과-창랑정의 소멸-를 알고 시작한다는 것은 순수한 서사적 형상화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객관적 방해요소이다. 그 결과 서정적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의 삶에 대립되는 이상적인 삶을 향한 상승되고 고조된 욕망이자, 이러한 동경이 무위로 끝나 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망적인 통찰이다."<sup>14)</sup> 이러한 서정성을 담고 있고 또 이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분위기는 환멸적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창랑정기>가 소설로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에세이(수필)란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글쓰기 아닌가. 따라서 단순한 회상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작가인 유진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을 표나게 드러내고 있다.

창랑정의 기억은 대개 여태까지 기록해 온 것에 그친다. 그러나 그 뿐이라면 또 그다지 창랑정이 내 머리를 왕래하지 않았을 것이요, 소설의 형식을 빌어 이 곳에 일부러 쓰게까지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sup>15)</sup>

13) 투카치, 앞의 책, p.148.

14) 투카치, 위의 책, p.153.

15) 유진오, 앞의 책, p.229.

위의 인용은 6장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을순과 함께 발견한 칼을 서장 대신이 감개무량해 하던 것을 끝으로 어린 시절 창랑정과 얽힌 일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있는 대목이다. 유진오로 하여금 소설의 형식을 빌어 쓰게끔 한 연유는 “창랑정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없어졌기 때문에 창랑정은 더 한층 내 향수를 자아내”<sup>16)</sup>기 때문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것을 흔적도 없게 하는 시간의 악마적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루카치는 “이념의 선형적 고향상실성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만이 베르그송이 말하는 바의 지속적 시간으로서의 실제적 시간을 그 자체의 구성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본질을 찾아야만 하지만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소재로 삼고 있는 소설에서만 시간의 형식과 함께 주어진다. 이러한 소설에서는 의미와 삶은 서로 분리되고, 소설의 모든 내적 줄거리는 시간의 힘에 저항하는 하나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다.

유진오는 시간이 창랑정에 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에 대항하기 위해 소설의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는 시간의 힘을 초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간의 힘을 초월하기 위해 소설의 형식을 택한 <창랑정기> 또한 서사 내적으로 고스란히 환멸의 낭만주의라는 또 다른 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멸의 낭만주의에서는 시간은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하나의 원칙이다. 시적인 것, 즉 본질적인 것은 사라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점차 사라지도록 만드는 종국적 원인이 바로 시간이다.<sup>17)</sup>

다음은 시간의 힘에 의해 훼손된 창랑정의 모습이다.

창랑정이 있던 듯이 생각되는 곳에는 낮모르는 큰 공장(당인리 화력 발전소: 인용자)이 있어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으로 검은 연기를 토하고 있었다. 너무나 심한 변화에 실망한 채 나는 한참이나 공장 앞마당 석탄재 쌓인 위를 거닐며 꿈속의 기억을 되풀이하여 보려고 하였다. 마당 앞 낭떠러지 밑 푸른 강물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출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읍산하게 찌푸린 하

16) 유진오, 같은 곳.

17) 루카치, 앞의 책, p.162.

늘에서는 봄이라 해도 오슬오슬 쌀쌀한 바람이 불어 내려올 뿐. 끊임없이 앞가닥거리고 돌아가는 기계소리는 애써 옛기억을 더듬으려는 내 머리를 여지없이 혼란시킨다.<sup>18)</sup>

이러한 시간의 힘을 넘어서는 길은 무엇인가? 방법은 단순하다. 시간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울순과 함께 찾아냈던 “내 키보다도 더 길고 내 힘으로는 쳐들기도 무거운 큰 칼”이다.

썩은 칼집은 군데군데 불어 있을 뿐 파내는 통에 다 떨어져 갔으나 알맹이는 흙을 대강 털고 보니 등이며 날이 엇그제 새로 지은 것같이 아직도 생생하였다. 칼자투와 손잡이에는 이상한 조각이 가득하고 찬란한 순금 장식의 눈이 어리게 빛나고 있다.<sup>19)</sup>

칼집처럼 시간의 힘에 의해 모두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칼몸동이처럼 시간의 힘을 벗어나 새로 지은 것같이 생생함을 유지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을 극복하는> 시간의 체험, 곧 서사적인 시간의 체험”<sup>20)</sup>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과정은 행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이 때 소설의 형식은 그 내용의 모든 암담함과 슬픔 저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구현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좌절된 찾음의 뒤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는 저멀리 아른거리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찾음과 투쟁의 다양한 실패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의 충만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랑정기>는 이러한 모습을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다만 창랑정이 있던 곳은 큰 공장파 석탄재 더미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던 하늘은 검은 연기와 대륙을 위협하는 최신식 여객기가 차지한 채로, 현실의 개별적 파편들이 하나하나 부서지고 유리되어 경직된 상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나란히 병렬될 따름이다. 또한 서술자의 내면성은 현실의 하잘 것 없음에 저항할 수 있는 서정적 힘이나 냉소적인 파토스의 힘

18) 유진오, 앞의 책, p.231.

19) 유진오, 앞의 책, p.229.

20) 루카치, 앞의 책, p.164.

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단지 옛날의 흔적만을 찾고자 애쓸 뿐이다. 녹슬지 않는 칼은 서사적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환유적 대상은 될 수 있을 지라도 기실 행동적 의미는 빠져 있다.

행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유진오로 하여금 행동에 대한 부담이 없는 어린 소년을 등장시킴으로서 그것을 피해 가고자 하나, 주인공에게 있어 행동이 부재함으로 인해 서사적인 시간의 체험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은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파악될 수밖에 없다. 행동 속에서 스스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 성년의 서술자의 내면은 유년의 뿌리체험을 반추함으로써 안으로만 향하게 되지만, 1930년대 후반의 삶은 그 내면성에 그러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 4. 맺음말

<창랑정기>는 끝내 환멸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끝을 맺는다. 회상이라는 견고한 형식적 장치가 서사시적 상태를 지향하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기에 서술자는 끝까지 관조자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작가인 유진오가 당시의 폐쇄된 현실과 대응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환멸의 낭만주의라는 서사적 실험을 통해 유진오는 그 결말의 허무함을 절감하게 되고, 다시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시도하게 된다.

<창랑정기>와 마찬가지로 회상의 형식을 끌어 들이고 있는 <가을> (『문장』, 1939.5)과 <산울림> (『인문평론』, 1941.1)의 경우 회상의 역할은 훨씬 축소되고 현실의 삶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 그것은 두 작품이 유년기가 아닌 청년기의 실천적인 삶을 뒤돌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의 삶이란 것이 서사시적 시간을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혹독한 현실에 영혼의 넓이가 무력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양형태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른바 시정의 리얼리즘이란 이러한 서사적 실험을 거친 유진오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임화, 『문학의 논리』 (서음사, 1989)  
임학수, 『문장』 (1941.3)  
최재서, 『성격에의 의욕』 『인문평론』 (1940)  
칸트, 『판단력비판』 (박영사, 1986)  
\_\_\_\_\_,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1986)  
루카치(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페터 지마(허창운 역), 『문예미학』 (울유문화사, 1993)  
오영숙, 『유진오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 1990)  
이중재, 『유진오론』 (동국대 석사, 1985)  
강삼희, 『유진오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 1994)



# 金鎮世·李基文 教授 略歷 및 論著 目錄





# 金鎮世 教授 略歷 및 論著 目錄

## I. 약력

- 1930년 9월 28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출생  
1950년 5월 31일 대전고등학교 졸업  
1950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입학  
1952년 3월 10일 군 입대  
1957년 4월 15일 해병대 대위로 제대  
1960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1960년 4월 1일 서울여자고등학교 교사  
1960년 4월 12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1963년 2월 15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문화연구소 보조연구원  
1963년 8월 30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65년 3월 1일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  
1965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문화연구소 보조연구원 사임  
1966년 2월 28일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 사임  
1966년 3월 1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간강사  
1967년 2월 8일 영남대학교 병설 여자초급대학 조교수  
1967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간강사 사임  
1968년 3월 31일 영남대학교 병설 여자초급대학 조교수 사임  
1968년 4월 21일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1970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과장
1972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과장 사임
1972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1974년	4월 20일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총무간사
1975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조교수
1975년	4월 20일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출판간사
1976년	8월 7일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관악사)	사감
1978년	4월 1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부교수
1978년	12월 29일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관악사)	사감 사임
1978년	12월 30일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관악사)	사감장
1980년	12월 29일	서울대학교	학생기숙사(관악사)	사감장 사임
1982년	6월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	방송교육과장	
1983년	1월 7일	한국방송통신대학	통신교육연구소	소장
1983년	4월 14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1984년	5월 31일	한국방송통신대학	통신교육연구소	소장 사임
1988년	4월 25일	한국고소설연구회		회장
1988년	5월 7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장
1990년	4월 14일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부회장
1990년	5월 6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장 사임
1990년	5월 15일	한국고소설연구회		회장 사임

## Ⅱ. 논저 목록

1. 허균연구(국문학연구 2,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5)
2. 太原誌考(논문집 1, 영남대, 1967)
3. 홍길동전의 작자고(논문집 1, 서울대 교양과정부, 1969)
4. 현씨양웅쌍린기 연구(논문집 4, 서울대 교양과정부, 1972)
5. 이조연작소설 연구(논문집 5, 서울대 교양과정부, 1973)

6. 이조장편소설 연구(고전문학연구 1 별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5)
7. 쌍천기봉 연구(관악어문연구 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6)
8. 완월희맹연 연구(1)(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7)
9. 이조후기 대하소설 연구 - 완월희맹연의 경우(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일조각, 1978)
10. 완월희맹연 연구(2)(관악어문연구 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9)
11. 완월희맹연 연구(3)(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
12. 윤하정삼문취록(교주·공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3. 명주보월빙(교주·공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4.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지적 연구 - 낙선재본과 덕흥서림본의 경우(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1)
15. 엄씨청묘효행록 연구(1)(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16. 한국 고전대하소설 연구 - 이씨세대록을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3)
17. 화산선계록 연구(1)(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4)
18. 잔당오대연의고(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19. 조선조 대하소설 연구 -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6)
20. 낙선재본 소설의 국적문제, 한국문학사의 쟁점(집문당, 1986)
21. 명주옥연재합록고(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7)
22. 완월희맹연 1~12(교주)(서울대 출판부, 1987~1995)
23. 조선조 후기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변이양상 - 완월희맹연을 중심으로(한국문화 10, 한국문화연구소, 서울대, 1989)
24. 완월희맹연(황패강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Ⅱ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25. 완월희맹연(성오소재영교수 환력기념논총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李基文 教授 略歷 및 論著 目錄

## I. 약력

1930. 10. 23. 평안북도 정주군 오산에서 태어남.
1949. 9. - 53. 3.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1953. 4. - 57. 3. 同 대학원 석사과정 마침.
1957. 4. - 63. 8. 同 대학원 박사과정 마침.
1973. 2. 同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받음.
- 
1959. 4. - 61. 9.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조교수
1962. 4. - 63. 5.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전임강사
1963. 5. - 69. 1. 同 조교수
1969. 1. - 72. 12. 同 부교수
1972. 12. - 75. 2. 同 교수
1975. 3. - 同 인문대학 교수
- 
1960. 9. - 61. 8. 미국 하버드대학 초빙학자
1965. 9. - 67. 7.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부교수
1974. 9. - 74. 12. 일본 학술진흥회 객원교수
1977. 여름 미국 언어학회 Linguistic Institute 객원교수
1980. 3. - 81. 2. 미국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
1985. 4. - 85. 7. 독일 DAAD 객원교수
1991. 9. - 92. 6. 미국 하버드대학 초빙학자
1993. 10. - 94. 9. 일본 동경대학 객원교수

1975. 12. - 78. 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장  
 1978. 8. - 80. 2. 한국어언어학회장  
 1981. 10. - 85. 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장  
 1982. 12. - 대한민국의학원 회원  
 1985. 7. - 87. 7.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1985. 6. - 87. 5.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1988. 3. - 90. 3. 국어연구소장  
 1988. 3. - 90. 2. 국어학회장  
 1990. 6. - 한국알타이학회장

## II. 논저 목록

- 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1956 『言語學原論』(譯書), 民衆書館.  
 1957 朝鮮館譯語의 編纂年代, 文理大學報(서울대) 5:1.  
 1957 鷄林類事의 一考察,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一潮閣.  
 1958 A Comparative Study of Manchu and Korean, *Ural-Altische Jahrbücher* 30.  
 1958 女眞語 地名攷, 文理大學報(서울대) 6:1.  
 1958 中世 女眞語 音韻論 研究, 論文集(서울대) 7.  
 1959 On the breaking of \*i in Korean, 亞細亞研究 2:2.  
 1959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文理論集(고려대) 4.  
 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127.  
 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2 龍飛御天歌 國文 歌詞의 諸問題, 亞細亞研究 5:1.  
 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1962 『俗談辭典』(編), 民衆書館. (1980: 일조각)  
 1963 A Genetic View of Japanese, 朝鮮學報 27.

- 1963 『國語表記法の 歷史的 研究』, 韓國研究叢書 18.
- 1963 十三世紀 中葉의 國語 資料, 東亞文化 1.
- 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ische Jahrbücher* 35.
- 1964 動詞 語幹 ‘았-, 었-’ 의 史的 考察, 『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新雅社.
- 1964 蒙語老乞大 研究, 震檀學報 25·26·27.
- 1964 알타이語學과 國語, 국어국문학 27.
- 1965 近世 中國語 借用語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8:2.
- 1966 鷹鷓名의 起源的 考察, 『가람李秉岐博士 頌壽紀念論文集』.
- 1967 韓國語 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5(상)』,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1967 蒙學書 研究의 基本 問題, 震檀學報 31.
- 1968 鷄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 8.
- 1968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4.
- 1968 母音調和와 母音體系,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乙酉文化社.
- 1968 朝鮮館譯語의 綜合的 檢討, 論文集(서울대) 14.
- 1969 蒙文十二字頭에 대하여, 『金載元博士 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 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 1970 『開化期의 國文 研究』, 一潮閣.
- 1970 新羅語의 「福」(童)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50.
- 1971 『訓蒙字會 研究』, 서울大出版部.
- 1971 母音調和의 理論, 語學研究 7:2.
- 1971 語源 數題,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一潮閣.
- 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8 : 塔出版社)
- 1972 『國語 音韻史 研究』, 韓國文化研究所(1977 : 塔出版社).
- 1972 石峯千字文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6·57.
- 1972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11.
- 1973 韓國語와 日本語의 語彙 比較에 대한 再檢討, 어학연구 9:2.
- 1973 十八世紀의 滿洲語 方言資料, 震檀學報 36.
- 1974 訓民正音 創製에 關連된 몇 問題, 國語學 2.

- 1975 Remarks on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ltaic,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 1975 衿陽雜錄의 穀名에 대하여, 東洋學 5.
- 1976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韓國學報 5.
- 1976 『周時經全集 上,下』(編), 亞細亞文化社.
- 1976 『韓國의 俗談』(編), 삼성문화문고 84.
- 1977 濟州道 方言의 '으'에 관련된 몇 問題,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 1977 韓國語와 알타이諸語의 語彙 比較에 대한 基礎的 研究, 東亞文化 14.
- 1978 The Reconstruction of \*yʌ in Korea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Hornbeam Press, Inc.
- 1978 國語의 人稱代名詞, 冠岳語文研究 3.
- 1978 十五世紀 表記法의 一考察, 언어학 3.
- 1978 語彙 借用에 대한 一考察, 언어 3:1.
- 1979 中世國語 母音論의 現狀과 課題, 東洋學(檀國大) 9.
- 1980 19世紀 末葉의 國語에 대하여, 『南廣祐博士回甲紀念論叢』, 一潮閣.
- 1980 '글'에 관한 斷想, 『池憲英先生 古稀紀念論叢』, 螢雪出版社.
- 1980 加波島 方言의 特徵, 『延岩玄平孝博士 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 1980 訓民正音 創製의 基盤, 東洋學 10.
- 1981 『韓國語 形成史』, 삼성문화문고 160.
- 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 1981 千字文 研究(1), 韓國文化 2.
- 1981 한헌생의 언어 및 문자 이론, 어학연구 17:2.
- 1982 百濟語 研究와 관련된 몇 問題, 百濟研究 忠南大 開校 30周年 特輯號.
- 1982 東아세아 文字史의 흐름, 東亞研究(서강대) 1.
- 1982 素月詩의 言語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1983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 12.
- 1983 『韓國 語文의 諸問題』(共著), 一志社.
- 1984 開化期の 國文 使用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 5.
- 1984 『國語音韻論』(共著), 學研社.
- 1985 '椽大'와 '加達'에 대하여, 국어학 14.
- 1985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21:1.
- 1985 語源 研究의 方法, 『第一次 KOREA學 國際交流세미나論文集』, 黑龍江 朝鮮民族出版社.
- 1986 借用語 研究의 方法, 『金敏洙教授華甲紀念 國語學新研究』, 塔出版社.
- 1986 '九國所書八字'에 대하여, 震檀學報 62.
- 1987 國語의 語源研究에 대하여, 『第1回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論文集』, 仁荷大學校 韓國學研究所.
- 1987 內訓에 대하여, 奎章閣 10.
- 1988 安白山의 國語 研究, 주시경학보 2.
- 1988 陰德記의 高麗詞之事에 대하여, 국어학 17.
- 1989 古代國語 研究와 漢字의 새김 問題, 진단학보 67.
- 1989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 주시경학보 4.
- 1990 『韓國語의 發展 方向』(共著), 민음사.
- 1990 韓國語와 蒙古語의 關係, 大東文化研究 24.
-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1991 三國時代의 言語 및 文字生活, 『韓國思想史大系 2: 古代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1991 韓國語 속의 만주통구스諸語 借用語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3.
- 1991 Mongolian Loan-words in Korean, 알타이학보 3.
- 1993 한국 언어 지도집 Language Atlas of Korea(共著), 學術院, 成地文化社.
- 1993 訓民正音 親制論, 韓國文化 13.
- 1993 국어 사전의 어원 표시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2-4.
- 1994 제주방언과 국어사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 13.



- 1994 高麗史의 몽고어 단어들에 대한 재검토,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  
집 32.
- 1994 國語史 研究의 反省, 국어학 24.
- 1995 Remarks on the Study of Word-Formatio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